“불법체류자라도 써야죠” 농번기 인력난 한숨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1230명 배정 받았지만 32명만 고흥으로
인력 적기 투입도 안돼 수확 차질…불법 알고도 브로커 통해 구인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데…국가는 왜 우리를 범법자 만드나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전남 농촌 들녘에 일손 구하기 비상이 걸렸다. 인력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대부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농가마다 파종 시기마저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국인을 대신해 농촌의 손발이 됐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한 데다 농사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어 인력난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벌금형을 감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까지 대거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줄어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라 영세 소규모 농업인들은 이마저도 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끊기다시피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부터 대거 입국시켜 농촌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14개 시·군 지자체의 농어가 433가구에 총 12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지만,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고흥에 배정된 32명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농번기를 앞두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과 6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2월과 7월에 해당 지역에 인원을 배정한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이에 응하는 노동자들을 모집해 출국 수속을 밟는 기간을 감안하면 배정 시기를 2개월가량 앞당겨야 농번기에 대응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월부터 영농이 시작되는데, 5월 중순 이후가 돼서야 입국하면 일을 가르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막상 현장에서는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작물은 수확일을 하루, 이틀만 넘겨도 썩어서 모두 버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치 규모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파종이나 이작을 하는 경우 수십명에서 백 여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반해 계절근로자로 배정 받는 것은 농가당 최대 12명 밖에 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력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장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편리하게’(짧은 기간· 필요할 때) 일손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영광군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A씨는 “당장 4월부터 고구마 순 파종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손을 맡아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법임을 알고서도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부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적어 예약을 해야 겨우 구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안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B씨도 “이달 안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수확에 차질이 생겨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해 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 노동자를 알아봤는데 그나마 한명 당 1~2만원 저렴해 이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일당을 제시해도 ‘다른 사장님은 얼마를 더 준다’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영세농가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 중개인들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탓에 소규모 인력을 요구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다.

대부분 20~40명 가량의 외국인노동자를 승합차나 버스에 태워 현장에 내려주는 일명 ‘차떼기’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개인 입장에서도 돈이 되고 편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갑을관계가 역전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총 250명 가량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봄철 어업이 끝난 시기에 이 인력을 농업에 배치하는 등 상황에 맞게 시군끼리 인력 배치를 교환하면서 부족한 일손 메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옥수수 심는 농부 농촌일손이 태부족인 가운데 12일 오후 화순군 도곡 농민들이 노지에 옥수수를 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일당 18만원까지 주는데도 인력 구하기 힘들어요”

농촌 인건비 급등에 아우성

“급할 땐 힘든 일은 18만원까지 일당을 주고 씁니다. 근데도 원하는 만큼 사람을 못 구할 때가 많아요.”

농번기 일손이 달리면서 전남 농촌의 일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2일 전남 농민들에 따르면 인부 수급 여건에 따라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전남 22개 시·군 모두 4~5월 농번기에는 남·여,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기본 일당이 12만원이다.

영광에서 고구마밭을 일구는 50대 농민 A씨는 여성 인부의 경우 일당 13만원, 남성 인부는 15~18만원까지 주고 고용한다. 요즘 밭에서 인부들이 하는 일은 고구마를 심는 일. 고구마 파종은 씨고구마에서 자란 순을 잘라 밭에 심는 방식인데, 모종을 담은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일은 대체로 남자들 몫이다. A씨는 “적게는 15만원, 일손이 부족하고 일이 급한 날은 18만원까지 줘봤다”고 했다.

마늘 파종이 한창인 무안지역 일당은 남녀 관계없이 13만원 수준이다.

배 주산지 나주에서는 농가들이 5월부터 본격화될 열매 솎는 작업을 앞두고 미리 일손 구하기에 나섰다. 제때 인부를 구하려는 농민들은 예년 수준인 12만원에 인부들을 구하려고 벌써부터 중개인들과 흥정을 하느라 힘을 빼고 있다.

보성군에서 쪽파를 수만평 재배하는 60대 농민 C씨는 여러 중개인과 거래선을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아침 6시30분까지 중개인이 봉고차에 인부들을 태우고 오면 작업을 시작해 오후 5시30분 마감을 한다. 인부들이 하는 일은 쪽파를 다듬고 한 단씩 줄로 묶는 작업으로 일당은 인당 12만원 수준이다.

전남 농민들은 최근 2~3년 사이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2019년만 해도 여성은 7~8만원, 남성은 10만원 수준이던 일당이 근래 들어 급등했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의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국외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촌 인력 시장을 주름잡는 불법 브로커들이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라진 새끼 삵 3마리 영산강환경청 현장 조사

전남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여름 발견됐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끼 삵 3마리 〈광주일보 4월 11일자 6면〉 사건과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강환경청은 13일 오전 사업승인기관인 함평군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공사 현장을 찾아 보호종 폐사 및 서식지 훼손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환경청은 앞서 12일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중제 골프장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사 측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지난 8월 벌목 작업 인부들이 새끼 삵 3마리를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환경청에 밝혔다. 시공사 측은 “현장 인부들이 어린 삵 3마리를 발견해 현장사무소로 가져왔는데 (저희가) 최초 발견됐던 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당시 어미 삵도 있었다”며 “우리가 자리를 비우자 5분뒤 사라진 것으로 볼때 어미와 함께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삵을 처음 발견했던 하청 소속 벌목 인부들의 주장은 달랐다.

한 인부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어미는 없었다.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에 새끼들을 놔두고 도망간 것 같다”며 “나뭇가지 위에서 젖먹이 새끼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시공사는) 신경쓰지 말고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닦달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보호기관에 신고할 줄 알았던 터라 깜짝 놀랐다. 8월 땡볕에서 젖먹이 삵들이 살아남았을 확률이 희박해 보여 죄책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 현장조사와 승인기관(함평군), 시공사, 하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트레일러차 벽과 충돌 운전자 사망 컨테이너 추락 차량 4대 연쇄 추돌

광양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트레일러 차량이 도로 벽과 충돌,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충격으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컨테이너와 추돌했다.

12일 오전 8시 40분께 광양시 중군동 동광양IC 인근 고가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도로 외벽을 충돌했다. 운반 중이던 컨테이너는 차량과 분리돼 도로 외벽을 넘어 5m 아래 도로로 추락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래쪽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3대와 버스는 갑자기 떨어진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과 버스 승객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컨테이너에는 플라스틱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원료가 실려 있어 위험물은 아니었다고 소방은 밝혔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